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 드리는 기도편지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시온교회의 시련과 현재의 고난

시온교회(锡安教会)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켜온 중국의 비삼자(정부에 등록하지 않는) 가정교회입니다. 2007년 김명일 목사님이 몇몇 가정과 함께 베이징(北京市)에 시온교회를 개척, 10년 만에 약 1,500명의 성도와 함께 중국 신흥 도시교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9월 9일, 정부에 의해 교회가 강제 폐쇄되고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수백 명의 성도들이 위협 속에 참여를 막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후 김명일 목사는 7년째 출국이 제한되어 미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만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7년간, 시온교회는 박해와 코로나 이중의 도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중국 내 약 40개 도시에 100여개 이상의 소규모 개척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복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에도 정부의 압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동역자, 성도들이 경찰의 괴롭힘, 위협, 심문을 당했으며 단기 구속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 들어서면서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수십 개 도시의 예배 처소가 빈번히 방해받았고, 경찰서로 연행된 성도들의 수가 150명을 넘어섰으며, 11명의 목회자가 행정구속(보통 14일 구속)을 당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25년 10월 9일, '10.9 사건(시온교회 관련사건)'이 공식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10월9일, 왕린(王林) 목사님이 썬전(深圳) 공항에서 실종
- 10월 10일 오후 7시경, 김명일(金明日) 목사, 인회빈(尹会彬) 목사 및 사모, 몇몇 동역자들이 경찰의 침입과 함께 수갑 채워져 연행
- 동시에 베이징에서는 가우잉쟈(高颖佳) 목사, 쑈충(孙聰) 목사, 왕충(王聰) 목사 및 몇몇 전도사와 동역자들이 베이하이(北海)에서 온 경찰에 의해 동일하게 연행
- 10월 11일에는 칭다오(青岛)의 류전빈(刘桢彬) 목사, 청두(成都)의 린수청(林书鍊) 목사까지 체포
- 10월 17일, 왕중(汪忠)장로는 상해 지하철에서 체포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목회자와 동역자 수는 총 30명에 달하며, 그중 3명 사역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取保候审)되었고, 4명 사역자는 10월12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23명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여전히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해외에 머물고 있는 몇몇 목회자도 있는데 그중 사건 이전에 사역으로 인하여 해외에 머물고 있다가 사건이 터짐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몇몇 목회자들은 사건 이후 교회의 목양과 언론적인 성원을 후원받기 위해 긴급히 해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 고난 속에서 불드는 믿음과 소망

시온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단순한 사회적 사건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영적전쟁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걸으신 그 고

난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주님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3. 한국 교회에게 드리는 절박한 기도 요청

사랑하는 한국의 형제자매 여러분, 중국 교회의 지체들은 지금 깊은 어둠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평안과 능력으로 이 시련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을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1)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 구속된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보호와 위로가 임하도록
- 구속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하루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 변호사 선임과 모든 재정적인 필요가 주님의 은혜로 충족되도록

2) 성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 중국교회의 절박한 현실을 한국 교회와 사회에 널리 알려 주세요.
- 억압받는 형제자매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 주세요.
- "몸은 하나요 지체는 많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실천해 주세요.

3) 물질로 지원해 주세요

- 현재 박해 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 그리고 해외에 체류 중인 목회자들의 생계와 사역의 필요를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4.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소망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깊은 뜻과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중국 땅에, 그리고 한국과 열방 가운데 더욱 크고 순결한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24)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셔서, 억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간힌 자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 맺는 말씀

복음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감옥의 문은 육신을 가둘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결코 끓일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 시온교회와 중국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중보와 사랑의 손길 하나하나가 박해 받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늘의 위로이자 새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중국 시온교회 목회팀 드림

2025년 10월 31일